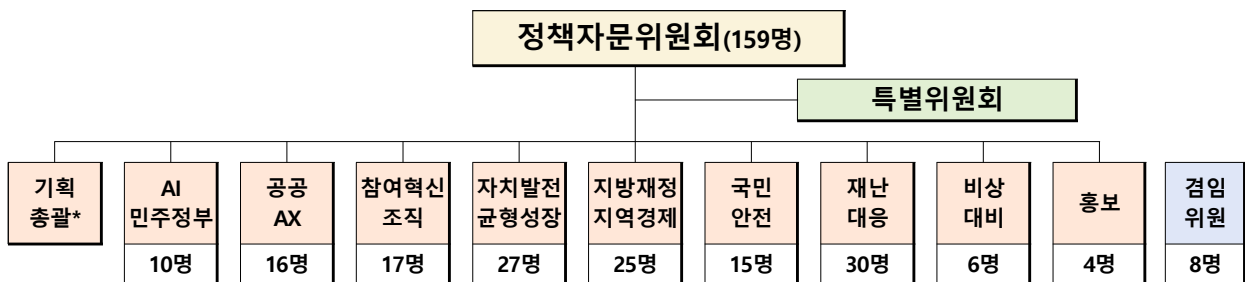
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1. 24.(월) 12:30
(지 면) 2025. 11. 25.(화) 조간

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

-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, 행정안전부 10대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본격 추진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1월 24일(월),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, 민간 전문가·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(AI) 민주정부·주민자치·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.
- 향후 1년('25.11.24.~'26.11.23.)간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·연구원·기업·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으며, 행정안전부 조직개편('25.11.25. 시행 예정)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.



* 기획총괄분과는 정책자문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

- 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'구성의 다양성 확대', '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', '업무 분야별 유연·신속한 자문'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.
- 우선 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고, 위원 구성에서 기업·시민사회 비중*이 크게 늘었다. 행정안전부 「2030 자문단**」을 검임위원으로 위촉하여,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.

* (기업·시민사회 구성 비율) (제7기) 10.5% → (제8기) 40.1%

** (2030 자문단) 행정안전부 소관 과제 중 청년세대 의견 반영이 필요한 주제 발굴·모니터링, 청년보좌역(단장) 및 20명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

○ 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.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‘특별위원회’에서 융합 토의도 진행한다.

□ 위원장은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는다. 김종걸 위원장은 ‘지속가능경제’ 분야 전문가로,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기획예산위원(2014~2015),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(2016~2017)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했다.

○ 이날 김종걸 위원장은 “행정안전부가 미래 대응 역량(future literacy)을 갖추기 위해서는 ‘5년 전략’과 ‘1년 단위 성과지표’를 마련해 성과를 꾸준히 측정해나가야 한다”고 제언했다.

□ 윤호중 장관은 “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새로운 시각과 실질적인 제안을 더해 주길 기대한다”라며,

○ “정책자문위원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, 위원들께서 주신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‘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’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신지혜 (044-205-1401)
		담당자	사무관	장중희 (044-205-1404)